

곽노현교육감 금명 소환

검찰, 2억원 대가성 확인...곽 교육감 사퇴 거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29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였던 박병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이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였다가 박 교수의 진술을 확보하고 금품 거래에 관련된 인물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전남 기자회견을 통해 2억원을 '선의의 지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26일부터 체포해 조사 중인 박 교수로부터 "후보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던 때부터 사퇴 조건으로 일정한 액수를 지원받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4면>

검찰은 돈을 건넨 시점이나 액수, 전달 방식 등에 비해 단순히 개인간의 선의로 보기에 상식 수준에 어긋나는 데다 대가성이 있다는 당사자 진술까지 확보한 만큼 조만간 곽 교

육감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방침이다.

박 교수는 특히 예초 교육감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곽 교육감 측에 7억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2억원만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박 교수는 선거를 2주 가량 남겨놓고 전격 사퇴해 곽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를 하기 전까지 선거 비용으로 5억~6억원을 지출했으며, 이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측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구두로 합의한 이후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자 양측 캠프에 있던 인사들 사이에 일부 갈등이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 형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과 후보 단일화를 논의할 당시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여러 장의 A4용지로 된 정리 문건과 녹취록 등을 박 교수의 컴퓨터 등에서 증거물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은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경선 교수가 박 교수의 동생에게 전달했으나, 검찰의 계좌 추적 결과 이들 사이에 박 교수 동생의 처남댁 등 친인척이 개입한 흔적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돈이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 교육감은 29일 오후 서울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식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자신은 떳떳하며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스



29일 담양군 창평면 한 들녘에서 70대 농민이 벼의 생육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상 기후와 태풍에 불량 범씨 파동까지 겹치면서 전남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올 쌀 생산량 30년만에 최저

이상기후·태풍피해에 불량범씨 파동 겹쳐 평년작 밑돌 듯

이상 기후와 태풍에 불량 범씨 파동까지 겹치면서 전남 올해 쌀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만에 최저 생산량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농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지난해(429만5000t)보다 1.2%~4% 감소한 412만4000~424만4000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재배면적이 지난해(89만2074ha)보다 4.3%(3만8251ha) 줄어든 85만3823ha에 그친데다, 올해 잦은 강우에 따른 일조량 부족으로 벼가 연약하게 자라고 있는 게 한 요인으로 농업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강수량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이달 다 이민국과 연방경찰을 통해 강제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지인과 함께 부산지축은행 측의 구명 로비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스

보다 152.7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중호우 등으로 10a당 쌀 생산량이 438~497kg에 그쳐 전년과 비슷하다.

이로 인해 전남지역도 구체적인 올해 쌀 생산량 전망치가 나오진 않았으나 재배면적 감소와 태풍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평년작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칫 지난 1980년(355만t) 이후 30년 만의 최저 생산량을 기록한 지난해(429만t)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지역 재배면적은 17만4930ha로, 지난해(18만3804ha)보다 4.8%(8874ha)나 감소했으며 벼 생육상황도 지난 16일 기준으로 포기당 이삭수가 18.2개로 평년보다 0.6개 적고 전국(19.8개)보다 적은 상황이다.

여기에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2000ha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데다, 비농사 초기 불량 범씨 파동으로 인해 우량 종자를 공급받지 못한 농가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도 작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이달 하순부터 내달까지의 일조시간이 쌀 수량의 74%를 결정하므로 올 작황과 생산량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생산량 예측은 매우 힘들다"면서 "도내 이삭당 벼알수도 91.5개로 평년보다 3.1개, 전국 평균보다 82.6개보다 많아 낱까만 종다면 작년 생산량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 연

맹 박형대 사무처장은 그러나 "불량 범씨에 잦은 강우 등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어서 등속기 기상 상황이 좋다고 하더라도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중순 이후 2009년산 정부쌀을 2010년산 반값에 판매하면서 산지 쌀 가격은 보합세로 바뀌었으며 7월 들어 하락세로 바뀌었고 이달 들어서는 하락세를 유지했다. 전남지역 산지 쌀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지난 15일 현재 14만6524원(80kg)으로 전국 평균 15만3048원보다 낮아 여전히 전국에서 산지 쌀가격이 가장 저렴했다. /김진수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산저축銀 수사 급물살

퇴출로비 핵심 브로커 박태규씨 귀국 조사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캐나다로 도피했던 부산저축은행그룹의 핵심 로비스트 박태규(71)씨가 지난 28일 자진 귀국한 직후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퇴출 저지 등을 위해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펼친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를 쥔 핵심인물로 지목받은 박씨가 스스로 돌아와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박씨는 혼자 캐나다 밴쿠버를 항공편을 타고 전날 오후 5시30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며, 대기하고 있던 중 수사부 관리들이 공항에서 신병을 확보

보해 곧장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조사실로 압송했다. 검찰은 압송 직후 법원에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전날 밤늦게까지 박씨를 상대로 그동안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과 도피 행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데 이어 이날 오전 조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이날 중 박씨가 받고 있는 기본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관계와 금융권 등에 두터운 인맥을 가진 거물급 로비스트인 박씨는 이미 구속기소된 로비스트 윤여성(56)씨, 해동건설 회장 박형선(59)씨와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의 구명 로비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스

검찰은 그동안 박씨가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로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행적을 추적해왔다.

박씨는 특히 부산저축은행이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삼성생명자산개발과 포스트로부터 1천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개입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3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공개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캐나다로 빠져나갔으며 검찰의 귀국 요구에 불응해왔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캐나다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고 캐나다 이민국과 연방경찰을 통해 강제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지인과 함께 부산저축은행 측의 구명 로비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스

광주광역시교육위원회
"가정폭력상담원"
교육일시: 2011년 9월 20일(화)~
※매주 화, 목 18:00 ~ (총100시간)
☎062)605-1112, 1063
접수기간: 9월 9일(금) 까지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톡톡튀는 아이디어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2011 지역발전주간 지역참여상품전

2011. 9. 7(수) ~ 9. 9(금) 김대중컨벤션센터 Kimdaejung Convention Center

무료입장

의료용품, 미용용품, 헬스케어용품, 주방용품, 유아용품, 문구용품, 아이디어시제품 etc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산업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역민간 기업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지역발전주간 지역참여상품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세요!

경품행사 3일간 하루에 한명 GALAXY Tab

추첨행사와 이벤트를 통하여 모든 관람객께 상품이 평평!!!

주최·주관 mke 지식경제부 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참여 상품전 행사운영본부 Tel. 02)3462-7722 www.ricomm.co.kr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96-10 에코빌딩 4층